

# 서울 교육환경 변화 및 학생 스트레스

- 지난 20년간(1994~2014년) 변화를 중심으로 -

통계데이터담당관(정보기획관)

- 교육은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고, 우리 사회를 바꾼 주요한 부문 중의 하나이므로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구변동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시 되고 있음.
- 이에 ‘서울 교육환경 변화 및 학생 스트레스’에서는 향후 학령인구에 포함될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0~5세)의 보육현황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수,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분포 등 교육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에 대한 시계열 변화 및 주요 특징을 통계로 작성하였으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주로 활용된 자료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교육통계연보(1994~2014년) 및 서울시·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03~2013년) 등임.

## 목 차

[요 약]	1
1. 학령인구 및 교육환경 변화	2
(영유아 만0~5세 및 초중고 학령인구 만6~17세 인구 )	
2. 교육환경(현장) 변화	4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학생들의 스트레스	12
(스트레스 인지율, 고민상담 대상)	

## 자료설명 및 유의사항

### ○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작성목적 : 사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시행·평가·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함.
- 작성범위 : 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등
- 조사대상 : 전국의 유치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16개 시도교육청
- 작성시점 : 매년 4월1일 기준

###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 조사목적 :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 파악,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
- 조사범위 : 중·고등학교(각 400개교, 전체 800개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74,167명, 2014년 기준)  
※ 서울지역은 중1~고3 표본학생 11,323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학교 컴퓨터실에서 일괄 조사함)
- 조사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생(목표모집단 : 2013년 4월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 ○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자치부, 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 인구의 변동 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행정 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초자료 : 주민등록인구(내국인)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자료, 등록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FINE)』 자료
- 집계방법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발표 시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이 포함되었으며, 주민등록법 개정(09.4.1)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0년말 기준부터 거주 불명자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하여 집계함

###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 ▶ 추계인구 : 국가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장래인구(매년 7.1기준, 2010-2040년 인구 추계), 최근의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 기초로 장래의 인구변화를 전망함(매년 7월 1일 기준)
  - ▶ 총조사인구 : 현재 경제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구(0, 5년 11월 1일 기준)
  - ▶ 주민등록인구 : 행정수요 파악 등 대민업무수행을 위한 주민등록상의 인구(분기별, 매년 12월 31일 기준) 특히, 유학 및 해외취업 등에 의한 해외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음.
- 통계표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요 약 내 용

### ■ (학령인구 변화) 저출산으로 만0~5세 영유아 및 만6~17세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

- 서울인구 지난 20년 새 6.1%(65만6천명) 감소하는 동안, 만 0~17세 인구 45.6%(133만명) 감소
    - ▶ 영유아 및 학령인구(만0~17세) : 1994년 291만7천명(전체인구의 27.1%) → 2014년 158만7천명(전체 인구 15.7%)
    - ▶ 영유아 및 학령인구 감소율 : 중학교 50.3% > 영유아 48.1% > 초등학교 43.9% > 고등학교 39.1% 순 감소
- ※ 여기서, 서울인구는 한국인(주민등록인구) 대상임

### ■ (영유아 교육)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증가 및 영유아 교사 99%가 여성

- 영유아 인구는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증가, 어린이집은 증가, 유치원 감소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 03년 23만8천명(전체 아동의 37.3%) → 13년 33만1천명(전체 아동의 67.6%)
    - ▶ 특히, 만0~2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54.8%로 2003년 19.2% 대비 2.9배나 증가
  -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2003년 11.1명 → 2013년 6.6명, 유치원교사 1인당 원생 수 21.2명 → 16.3명 감소
    - ▶ 2013년 기준 보육교사의 99.2%, 유치원 교사 99.3%가 여성
- ‘14년 통계는 2015년 3월 발표예정

### ■ (초중고 교육)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여건은 개선, 중·고 교원 50대가 가장 많아

- (초등학교) 2014년 서울 초등생 수 45만8천명으로 20년전인 1994년 90만명 대비 50.8% 수준으로 감소
  - ▶ 학교 수 증가, 학급 수 감소하여 학교 규모는 줄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 94년 42.8명 → 14년 24.3명으로 감소
  - ▶ 2014년 교원 수 2만9,613명으로 20년 새 3,500명 증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94년 34.5명 → 14년 15.4명으로 감소
  - ▶ 여교원 비율 94년 72.5% → 14년 85.9% 증가, 2014년 교원 연령 30대 32.8% > 40대 27.0% > 50세이상 24.7% > 20대 15.5%
- (중학교) 2014년 중학생 수 28만7천명으로 20년전인 1994년 59만4천명대비 48.2% 수준으로 감소
  - ▶ 학교 수 증가, 학급 수 감소하여 학교 규모는 줄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 94년 51.9명 → 14년 30.2명으로 감소
  - ▶ 2014년 교원 수 1만8,350명으로 20년 새 2,593명 감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94년 28.4명 → 14년 15.6명으로 감소
  - ▶ 여교원 비율 94년 58.6% → 14년 69.4% 증가, 2014년 교원 연령 50세이상 37.2% > 40대 27.8% > 30대 25.5% > 20대 9.5%
- (고등학교) 2014년 고등학생 수 32만명으로 20년 전인 1994년 51만7천명 대비 62.0% 수준으로 감소
  - ▶ 학교 수 증가, 학급 수 감소하여 학교 규모는 줄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 94년 49.3명 → 14년 30.9명으로 감소
  - ▶ 2014년 교원 수 2만2,957명으로 20년 새 1,901명 증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94년 24.5명 → 14년 14명으로 감소
  - ▶ 여교원 비율 94년 26.1% → 14년 48.4% 증가, 2014년 교원 연령 50세이상 38.7% > 40대 26.1% > 30대 25.6% > 20대 9.6%

### ■ (학생 스트레스) 서울 중·고생 80.6%가 스트레스 느끼지만, 선생님과 고민상담 1.2%에 그쳐

- (중고생 스트레스) 2014년 중고생 스트레스 정도 : 조금느낌 41.8% > 많이느낌 38.8% > 느끼지 않음 19.4%
  - ▶ 고교 여학생 89.5% > 중학 여학생 82.8% > 고교 남학생 77.7% > 중학 남학생 72.4%가 스트레스 느껴
  - ▶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원인 성적시험입시 등 56.6% > 부모님과 갈등 15.0% > 외로움 10.1% > 교우관계 7.3% 순 (2012년 통계)
- (고민상담 대상) 중고생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를 가장 선호, 중학 남학생 34.8% 상담 대상 없다 응답
  - ▶ 중고생 고민상담 : 친구 37.8% > 어머니 25.4% > 대상없다 22.8% > 형제자매 5.3% > 아버지 4.7% 순

# 1. 학령인구 및 교육환경 변화

서울인구 지난 20년 새 6.1%(65만6천명 감소하는 동안 영유아 및 초·중고 학령인구 45.6%(133만명 감소

▶ 영유아 및 학령인구 (만0~17세) : 94년 291만7천명 (전체인구 27.1%) → 14년 158만7천명 (전체인구 15.7%)

▶ 영유아 및 학령인구 감소율 : 중학교 50.3% > 영유아 48.1% > 초등학교 43.9% > 고등학교 39.1% 순 감소

영유아(0~5세)인구는 10년 새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은 9만3천명 증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 03년 23만8천명 (전체아동 37.3%) → 13년 33만천명 (전체아동 67.6%)

여성 교원비율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 교사 99%가 여성, 학생수 감소로 1학급당 학생 수 감소

▶ 초등생 (2014년) : 학생수 457,517명/1학급당 24.3명/ 교원 29,613명 (여 85.9% > 남 14.1% 1인당 15.4명

▶ 중학생 (2014년) : 학생수 286,826명/1학급당 30.2명/ 교원 18,350명 (여 69.4% > 남 30.6% 1인당 15.6명

▶ 고등학생 (2014년) : 학생수 320,398명/1학급당 30.9명/ 교원 22,957명 (여 48.4% < 남 51.6% 1인당 14.0명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변화로 0~5세 미취학 영유아 및 6~17세 초·중고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서울 인구(내국인 기준)는 1,010만3천명으로 1994년 1,075만9천명 대비 6.1% (65만6천명) 감소하는 동안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학령인구를 의미하는 만 0~17세 인구는 2014년 158만7천명으로 1994년 291만7천명 대비 45.6%(133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학령인구(0~17세 인구)는 1994년 전체 인구의 27.1%였으나 2004년에는 20.9%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5.7%에 불과하였음.

○ 지난 20년 새 서울인구 중 연령별 비중은 0~5세(영유아) 8.6%→4.8%, 6~11세(초등학교 학령인구) 8.0%→4.8%, 12~14세(중학교 학령인구) 5.4%→2.9%, 15~17세(고등학교 학령인구) 5.1%→3.3%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 2014년 기준 20년 새 영유아 및 연령별 학령인구 감소폭은 중학교 50.3% > 영유아 48.1% > 초등학교 43.9% > 고등학교 39.1%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내국인)						구성비							
	계	0-17세				18세 이상	계	0-17세				18세 이상		
		영유아 (0-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영유아 (0-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1994년	10,759	2,917	925	857	584	552	7,842	100.0	27.1	8.6	8.0	5.4	5.1	72.9
2004년	10,173	2,131	612	745	398	375	8,042	100.0	20.9	6.0	7.3	3.9	3.7	79.1
2010년	10,313	1,831	503	576	356	397	8,481	100.0	17.8	4.9	5.6	3.4	3.8	82.2
2011년	10,250	1,768	503	541	339	385	8,481	100.0	17.3	4.9	5.3	3.3	3.8	82.7
2012년	10,195	1,706	503	504	330	369	8,489	100.0	16.7	4.9	4.9	3.2	3.6	83.3
2013년	10,144	1,643	490	490	312	352	8,500	100.0	16.2	4.8	4.8	3.1	3.5	83.8
2014년	10,103	1,587	480	481	290	336	8,516	100.0	15.7	4.8	4.8	2.9	3.3	84.3
20년 증감	-656	-1,330	-445	-376	-294	-216	674		-11.4	-3.8	-3.2	-2.6	-1.8	11.4
증감율	-6.1	-45.6	-48.1	-43.9	-50.3	-39.1	8.6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절반 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크게 감소
  -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0~5세)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2013년 33만 1천명으로 0~5세 전체 아동 중 67.6%임.
  - 2014년 초등생은 45만8천명(1994년 90만명대비 50.8% 수준), 중학생 28만7천명(1994년 59만4천명 대비 48.2% 수준), 고등학생 32만명(1994년 51만7천명 대비 62% 수준)임.
- 어린이집은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감소했으며, 초·중·고 학교 수는 증가,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 2013년 어린이집은 6,742개소( '03년 4,573개소), 유치원은 869개소( '03년 976개소)임.
  - 2014년 초등학교 수 599개소( '94년 503개소), 중학교 383개소( '94년 347개소), 고등학교 318개소( '94년 266개소)임.
  - 2014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초등학교 24.3명( '94년 42.8명), 중학교 30.2명( '94년 51.9명), 고등학교 30.9명( '94년 49.3명)임.
- 여교원 비율 증가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 중·고 교원 연령 중 50세 이상 가장 많음.
  - 2013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중 여성이 99%이상으로 높았으며,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0~5세) 수는 6.6명( '03년 11.1명), 유치원교사 1인당 원생(0~5세) 수는 16.3명( '03년 21.2명)임.
  - 2014년 여교원 비율 초등학교 85.9%( '94년 72.5%), 중학교 69.4%( '94년 58.6%), 고등학교 48.4%( '94년 26.1%)임.
  - 2014년 교원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15.4명( '94년 34.5명), 중학교 15.6명( '94년 28.4명), 고등학교 14.0명( '94년 24.5명)임.
  - 2014년 교원 연령분포는 초등학교 교원은 30대>40대>50세이상>20대 순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은 50세이상>40대>30대>20대 순임.

<2013년 만0~5세 영유아 보육현황 >			<2014년 학교급별 학교 및 교원 현황>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 (원)	이용 아동 수	238,581명 (남 51.4% > 여 48.6%)	92,369명 (남 50.9% > 여 49.1%)	학생 수	457,517명 (남 51.7% > 여 48.3%)	286,826명 (남 52.3% > 여 47.7%)	320,398명 (남 51.5% > 여 48.5%)
	이용률 <sup>1)</sup>	48.7%	18.9%	학교 수	599개소	383개소	318개소
	시설 수	6,742개소	869개소	1학급당 학생 수	24.3명	30.2명	30.9명
교사	교사 수	35,967명 (남 0.8% < 여 99.2%)	5,667명 (남 0.7% < 여 99.3%)	교원 수	29,613명 (남 14.1% < 여 85.9%)	18,350명 (남 30.6% < 여 69.4%)	22,957명 (남 51.6% > 여 48.4%)
	1인당 아동 수	6.6명	16.3명	1인당 학생 수	15.4명	15.6명	14.0명
				연령분포	30대>40대>50대이상>20대 (32.8%) (27.0%) (24.7%) (15.5%)	50대이상>40대>30대>20대 (37.2%) (27.8%) (25.5%) (9.5%)	50대이상>40대>30대>20대 (38.7%) (26.1%) (25.6%) (9.6%)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보건복지 통계포털  
<sup>1)</sup> 이용률 : 시설(원) 이용 아동 수 / 0~5세 전체 아동 수 × 100  
 - 2013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 6세이상(방과후) 4,067명, 유치원 6세 31명이 제외된 통계임. 어린이집 2014년 통계는 '15년 3월에 발표예정

## 2. 교육환경(현장) 변화

### 2-1.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13년 전체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48.7%, 유치원 18.9%, 재가아동 32.4%로 나타남

-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은 2003년 37.3%에서 10년새 67.6%로 큰 폭 (30.3%p) 증가
- ▶ 특히, 2013년 0~2세 아동 중 이용비율이 54.8%로 2003년 19.2% 대비 2.9배나 증가

2013년 최근10년새 어린이집은 민간·국공립 모두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감소하였음

- ▶ 어린이집(국공립) : 2003년 4,573개소 550개소 → 2013년 6,742개소 (750개소 증가)
- ▶ 유치원 : 2003년 976개소 → 2013년 869개소 감소

2013년 최근10년새 보육교사는 3만5,967명으로 2.7배, 유치원교사는 5,667명으로 1.3배 증가

- ▶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 2003년 11.1명 → 2013년 6.6명 유치원 교사 1인당 원생 수 21.2명 → 16.3명

□ 2013년 만0~5세 영유아 48만9,543명 중 48.7%는 어린이집 이용, 18.9%는 유치원, 32.4%는 재가아동인 것으로 나타남.

□ 만 0~5세 영유아는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육 아동은 증가하고 있어 이용비율이 2003년 37.3%에서 2013년 67.6%로 10년 전 대비 30.3%p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2세 이하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2003년 19.2%에서 2013년 54.8%로 2.9배나 증가함.

○ 10년 전(2003년)과 비교하여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0~5세)는 8만9,232명 → 9만2,369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는 14만8,332명 → 23만8,581명으로 10년 새 1.6배(9만249명) 증가함.

○ 이 중 0~2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2003년 5만6,421명에서 2013년 13만6,696명으로 10년 새 2.4배(8만275명)나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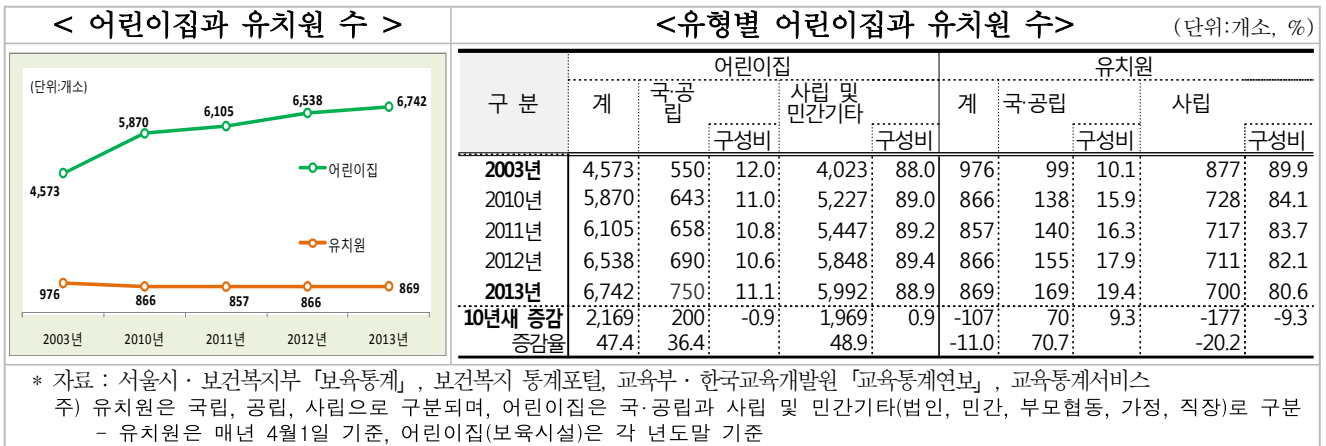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유치원 이용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	유치원 이용률	어린이집 이용률	유치원 이용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2003년	0~5세	636,789	148,332	23.3	89,232	14.0	237,564	37.3
	-0~2세	293,630	56,421	19.2			56,421	19.2
	-3~5세	343,159	91,911	26.8	89,232	26.0	181,143	52.8
2013년	0~5세	489,543	238,581	48.7	92,369	18.9	330,950	67.6
	-0~2세	249,819	136,696	54.7	148	0.1	136,844	54.8
	-3~5세	239,724	101,885	42.5	92,221	38.5	194,106	81.0
10년새 증감	0~5세	-147,246	90,249	25.4	3,137	4.9	93,386	30.3
	-0~2세	-43,811	80,275	35.5	148	0.1	80,423	35.6
	-3~5세	-103,435	9,974	15.7	2,989	12.5	12,963	28.2



□ 2013년 유치원 수는 지난 10년 새 107개 줄어든 반면 어린이집 수는 2,169개소 증가함.

- ▷ 어린이집 : 2003년 4,573개소 → 2013년 6,742개소
- ▷ 유 치 원 : 2003년 976개소 → 2013년 869개소(2014년 88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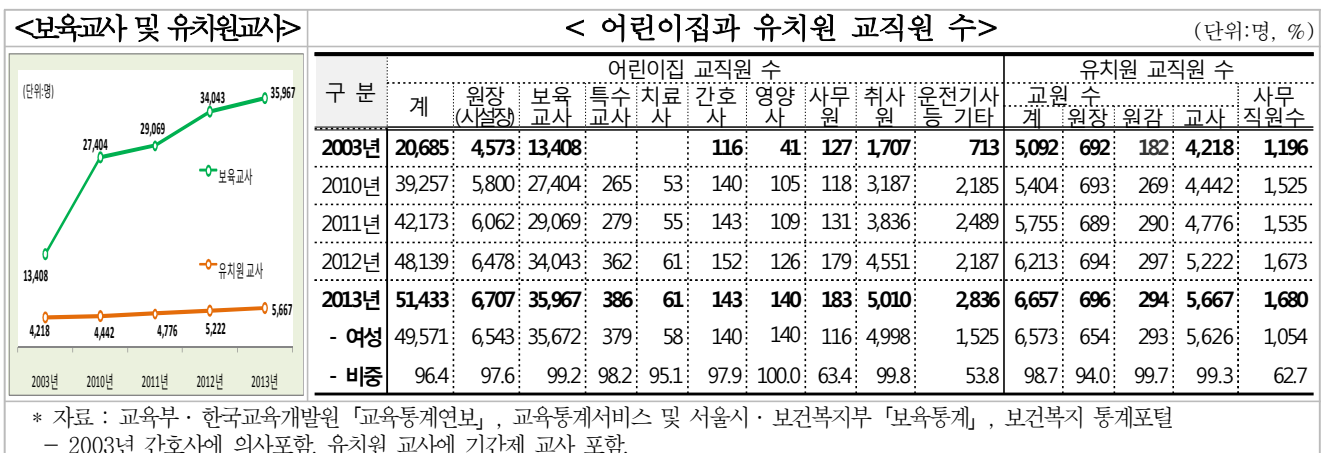
○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시설수는 2013년 750개로 2003년(550개) 대비 200개 증가하였으나, 사립 및 민간시설이 10년 새 1,969개의 급격한 증가로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2003년 12.0%에서 2013년 11.1%로 크게 높아지지 못하였음.



□ 지난 10여 년간 유치원 교직원 수는 1.3배(2003년 6,288명 → 2013년 8,337명)로 소폭 증가한 데 반해,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2.5배(2003년 2만685명 → 2013년 5만1,433명)나 증가함.

○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로 보면, 보육교사 중 99.2%, 유치원 교사 중 99.3%가 여성이고 보육교사는 10년 새 2.7배(2003년 1만3,408명 → 2013년 3만5,967명) 증가, 유치원 교사(2003년 4,218명 → 2013년 5,667명)는 1.3배 증가함.

○ 따라서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0~5세) 수는 2003년 11.1명에서 2013년 6.6명으로 감소했으며, 유치원교사 1인당 유치원생(0~5세) 수는 21.2명 → 16.3명으로 감소함.



## 2-2. 초등학교

2014년 서울 초등생 수 45만8천명으로 20년전인 1994년 90만명 대비 50.8% 수준으로 감소  
 학교 수는 증가 학급 수는 감소하여 학교 규모는 줄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감소로 쉼터 교실 잇달

- ▶ 학교 수 : 1994년 503개소 → 2014년 599개소, 학교당 평균 학급 수 41.8개 → 31.5개
- ▶ 학급당 평균 학생 수 : 1994년 42.8명 → 2014년 2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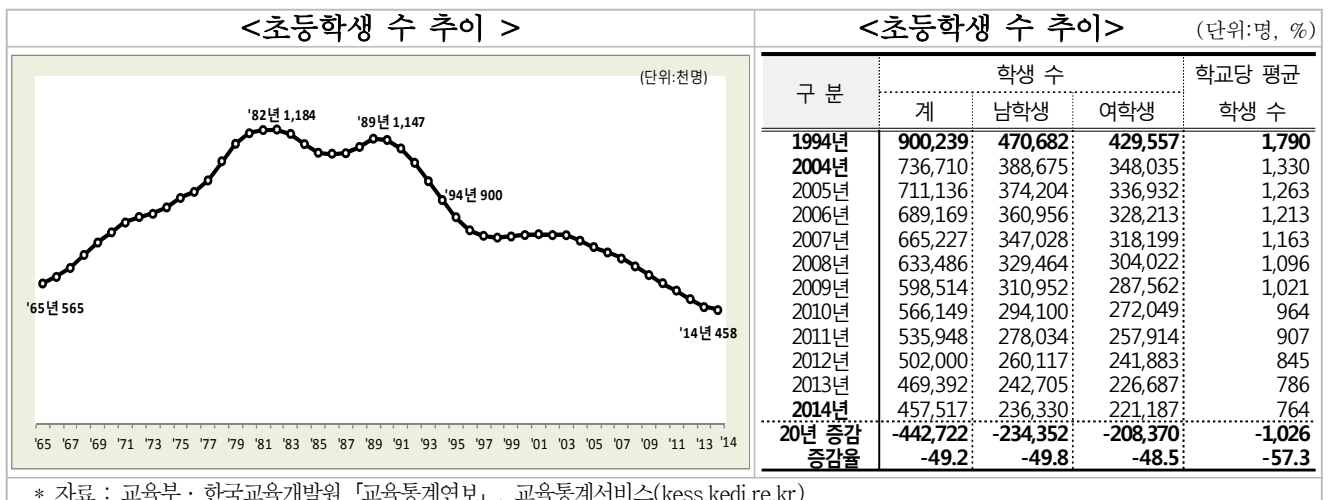
2014년 교원 수 2만9,613명으로 20년 새 3,500명 증가, 여교원 증가가 주 원인

- ▶ 여교원 비율 : 1994년 72.5% → 2014년 85.9%
- ▶ 교원1인당 학생 수 : 1994년 34.5명 → 2014년 15.4명, 교원 증가 및 학생 감소 원인
- ▶ 2014년 교원 연령 : 30대 32.8% > 40대 27.0% > 50세이상 24.7% > 20대 15.5%

□ 2014년 4월1일 기준 서울 599개 초등학교에 45만7,517명의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이 중 남학생이 23만6천명(51.7%)으로 여학생 22만1천명(48.3%)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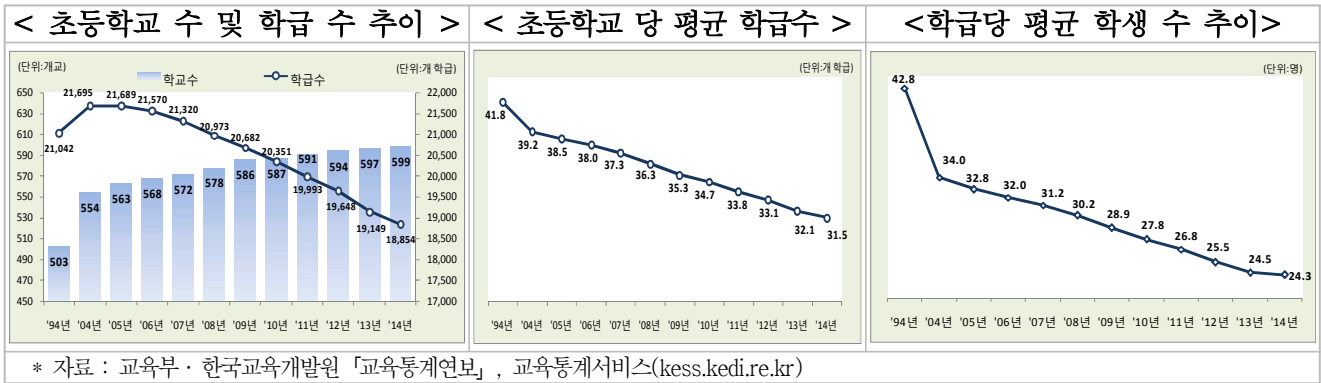
□ 저출산 영향으로 2014년 서울 초등학생 수는 45만7,517명으로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65년(56만5천명) 통계작성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서울 초등생 수는 1965년 56만5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2년 118만4천명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9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 46만9,392명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  
 진 후, 2014년에는 45만7,517명으로 1994년 90만239명 대비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함.
- 1990년 이후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 당 평균 학생 수가 1994년 1,790명에서 2014년  
 764명으로 20년 새 1,026명이나 감소하여 학생 수 별 학교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4년 실제 학생이 60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599개 중 207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34.6%, 600명에서 800명미만 23.9%(143개교), 800명이상 초등학교가 41.5%(248개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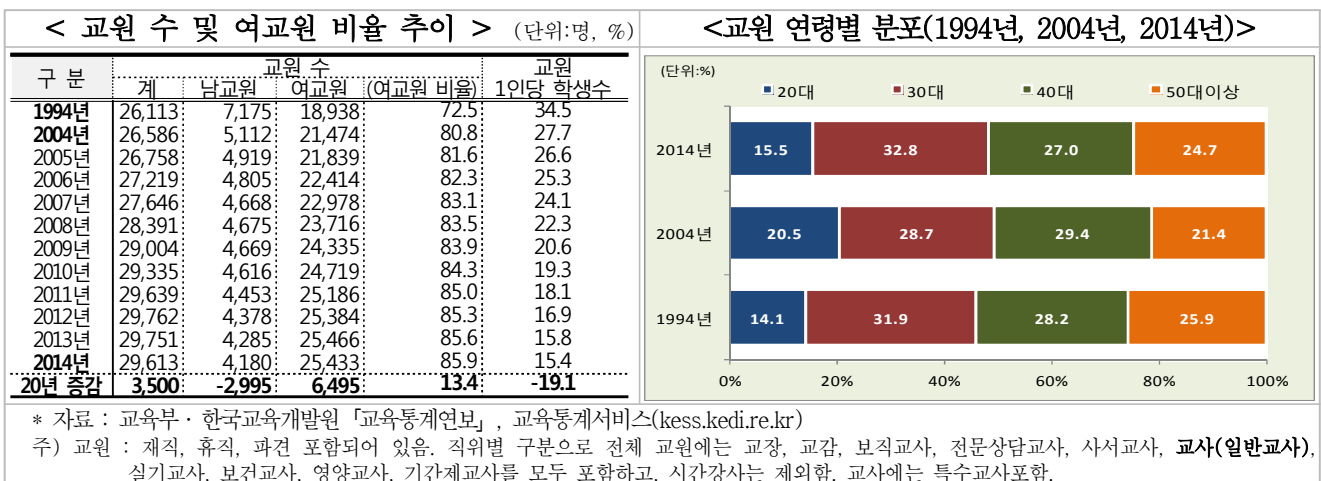




- 2014년 초등학교 수는 599개교(이중 1개교는 휴교)로 1994년 503개에서 96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수와는 달리 학급 수는 1994년 2만1,042개 학급에서 2004년 2만1,695개 학급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1만8,854개임.
- 학교당 평균 학급 수는 1994년 41.8개에서 2014년 31.5개 학급으로 학교 규모 감소.
- 또한 학생 수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가 1994년 42.8명에서 2014년 24.3명으로 감소함.



- 초등 교원 수는 2014년 2만9,613명으로 1994년 2만6,113명에서 20년 새 3,500명(13.4%) 증가했으나, 1965년 7,133명에서 급증하던 교원 수는 '90년 이후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증가율이 둔화 되었으며, 2012년 2만9,762명에서 2년 연속 줄고 있음.
- 지난 20년 새 남성 교원은 2,995명 감소(7,175명→4,180명), 여성 교원은 6,495명(1만 8,938명→2만5,433명) 증가하여 여성 교원 비중이 1994년 72.5%에서 2014년 85.9%로 높아짐.
- 전체적인 교원 수 증가 및 학생 수 감소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4년 34.5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19.3명으로 첫 10명대에 진입한 이후 2014년 15.4명에 달함.
- 또한 초등교원의 연령 분포는 20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2014년 교원 연령은 30대가 32.8%로 가장 많고, 40대 27.0%, 50세이상 24.7%, 20대 15.5% 순임.



### 2-3. 중학교

2014년 서울 중학생 수 28만7천명으로 20년전인 1994년 59만4천명대비 48.2% 수준으로 감소  
 학교수는 증가, 학급 수는 감소하여 학교규모는 줄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하여 30명대

- ▶ 학교 수 : 1994년 347개소 → 2014년 383개소, 학교당 평균 학급 수 33.0개 → 24.8개
- ▶ 학급당 평균 학생 수 : 1994년 51.9명 → 2014년 30.2명

2014년 교원 수 1만8,350명으로 20년 새 2,593명 감소, 남교원 감소가 주원인

- ▶ 여교원 비율 : 1994년 58.6% → 2014년 69.4%
- ▶ 교원1인당 학생 수 : 1994년 28.4명 → 2014년 15.6명, 학생 감소가 주 원인
- ▶ 2014년 교원연령 : 50세이상 37.2% > 40대 27.8% > 30대 25.5% > 20대 9.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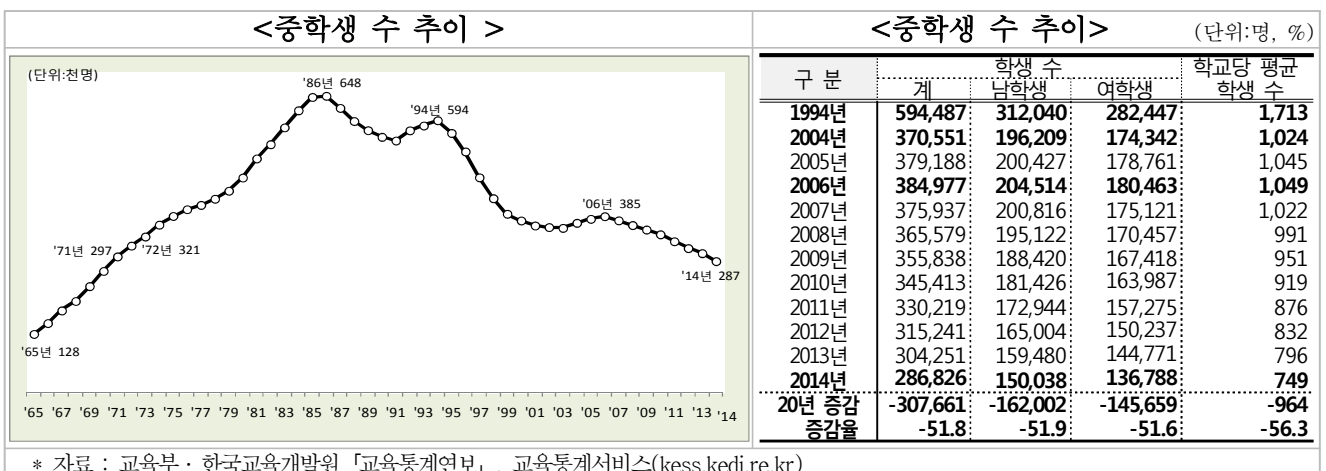
□ 2014년 4월1일 기준 서울 383개 중학교에 28만6,826명의 중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이 중 남학생이 15만38명(52.3%)으로 여학생 13만6,788명(47.7%)보다 많음.

□ 서울 중학생 수는 2014년 28만6,826명으로 20년 전(1994년 59만4,487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중학생 30만명 미만은 1971년(29만7천명) 이후 43년만임.

○ 중학생 수는 1965년 12만8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72년 32만1천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에 진입하여 1986년 64만8천명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9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28만6,826명으로 20년전인 1994년 59만4,487명 대비 48.2% 수준으로 감소함.

○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 당 평균 학생 수는 2014년 749명으로 1994년 평균 1,713명에서 964명 감소하여 학생수 별 학교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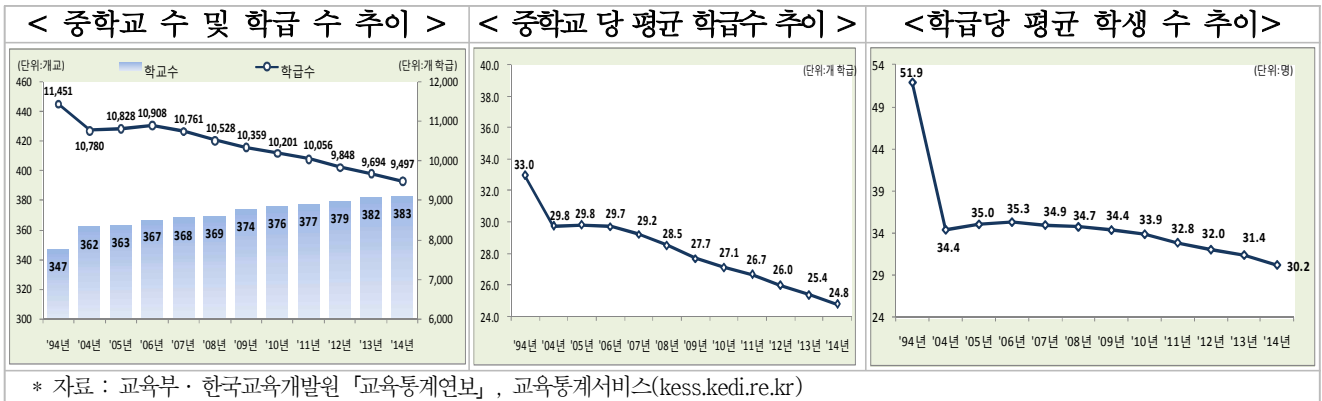
○ 2014년 실제 학생이 600명 미만인 중학교가 383개 중 120개소로 전체 중학교의 31.3%, 600명에서 800명미만 31.3%(120개소), 800명이상 중학교가 37.3%(143개)임.



□ 2014년 중학교 수는 383개교로 1994년 347개에서 36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수와는 달리 학교 내 학급 수는 2014년 9,497개 학급으로 1994년 1만1,451개 학급에서 감소 추세에 있음.

○ 학교당 평균 학급 수는 1994년 33.0개 학급에서 2014년 24.8개 학급으로 감소함.

○ 또한 학생 수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는 1994년 51.9명에서 2014년 30.2명으로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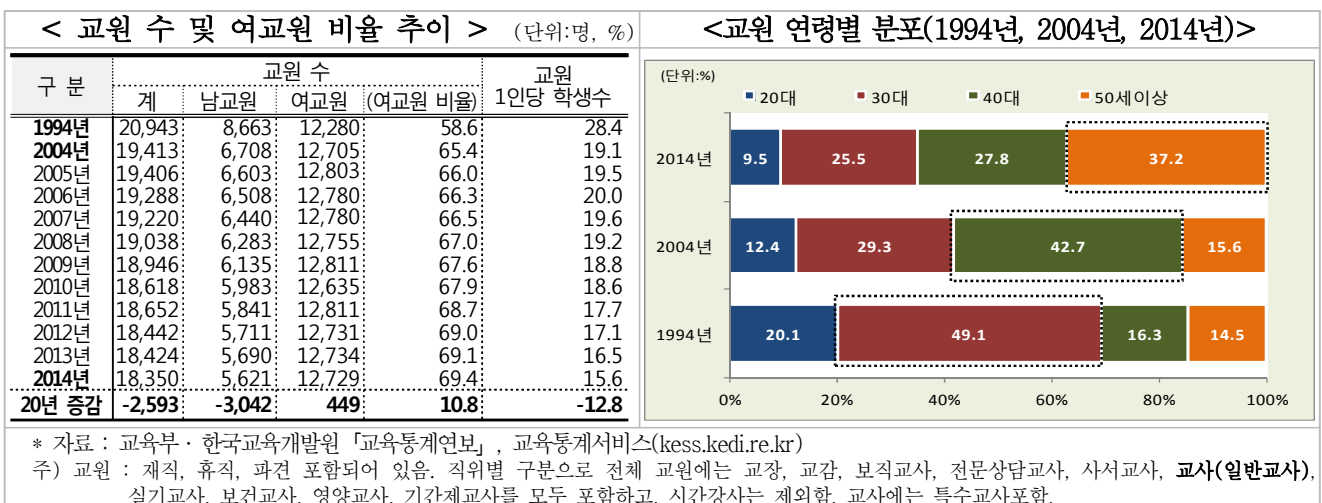


□ 중학교 교원 수는 2014년 1만8,350명으로 1994년 2만943명에서 20년 새 2,593명(-12.4%) 감소했으며, 1965년 3,258명에서 급증하던 교원 수는 '90년 이후 소폭 줄고 있음.

○ 지난 20년 새 남성 교원은 3,042명 감소(8,663명→5,621명)한 반면, 여성 교원은 449명 (1만2,280명→1만2,729명) 증가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이처럼 남성 교원의 감소로 전체 교원 중 여성 교원 비중이 1994년 58.6%에서 2014년 69.4%로 증가함.

○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4년 28.4명에서 2014년 15.6명으로 처음으로 15명대에 진입함.

○ 또한 교원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중학교 교원 주 연령층이 1994년에는 30대(49.1%), 2004년에는 40대(42.7%), 2014년에는 50세이상(37.2%)으로 높아짐.



## 2-4. 고등학교

2014년 서울 고등학생 수 32만명으로 20년전인 1994년 51만7천명 대비 62%수준으로 감소  
 학교수는 증가, 학급 수는 감소하여 학교규모는 줄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하여 30명대

- ▶ 학교 수 : 1994년 266개소 → 2014년 318개소, 학교당 평균 학급 수 39.4개 → 32.6개
- ▶ 학급당 평균 학생 수 : 1994년 49.3명 → 2014년 30.9명

2014년 교원 수 2만2,957명으로 20년 새 1,901명 증가, 여교원 증가가 주원인

- ▶ 여교원 비율 : 1994년 26.1% → 2014년 48.4%
- ▶ 교원1인당 학생 수 : 1994년 24.5명 → 2014년 14.0명, 교원 증가 및 학생 감소가 주 원인
- ▶ 2014년 교원연령 : 50세이상 38.7% > 40대 26.1% > 30대 25.6% > 20대 9.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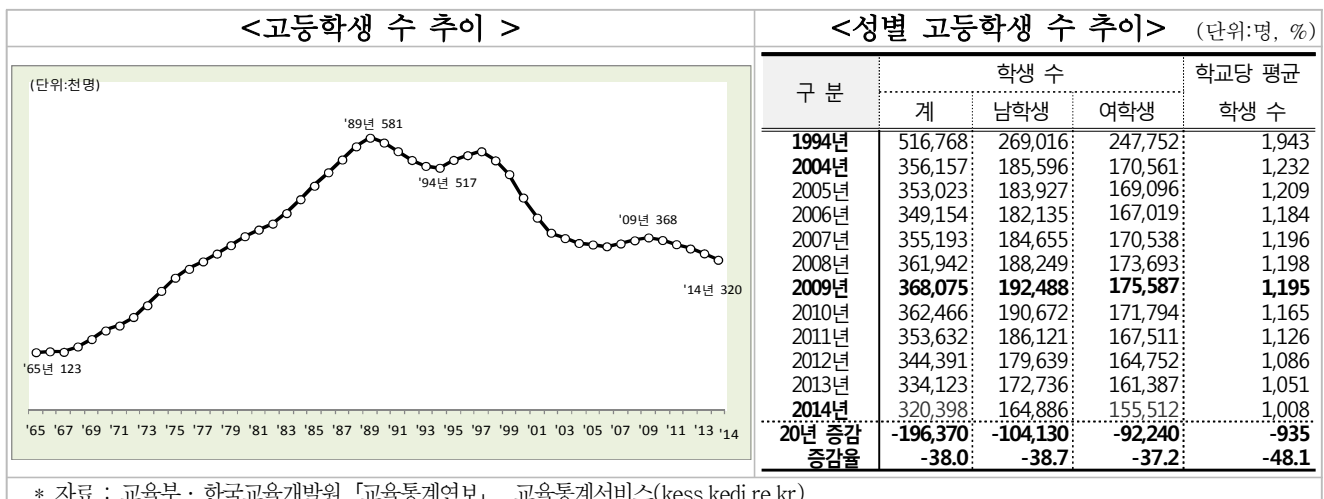
□ 2014년 4월1일 기준 서울 318개 고등학교에 32만398명의 고등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이 중 남학생이 16만4,886명(51.5%)으로 여학생 15만5,512명(48.5%)보다 많음.

□ 고등학생 수는 2014년 32만398명으로 20년 전(1994년 51만6,768명)의 62%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보다는 감소폭이 작지만 고등학생 수 감소폭도 큰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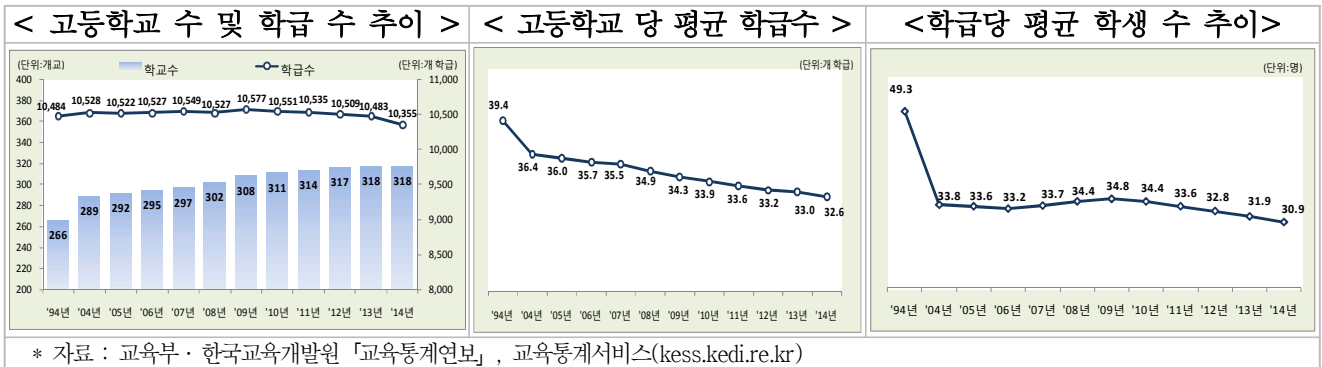
○ 서울 고등학생 수는 1965년 12만3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 58만1천명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9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4년 51만6,768명에서 2014년 32만398명으로 지난 20년 새 19만6,370명(-38.0%) 감소함.

○ 고등학교 당 평균 학생 수는 1994년 1,943명에서 2014년 1,008명으로 10년 새 935명 감소하여 고등학교 당 학생 규모가 줄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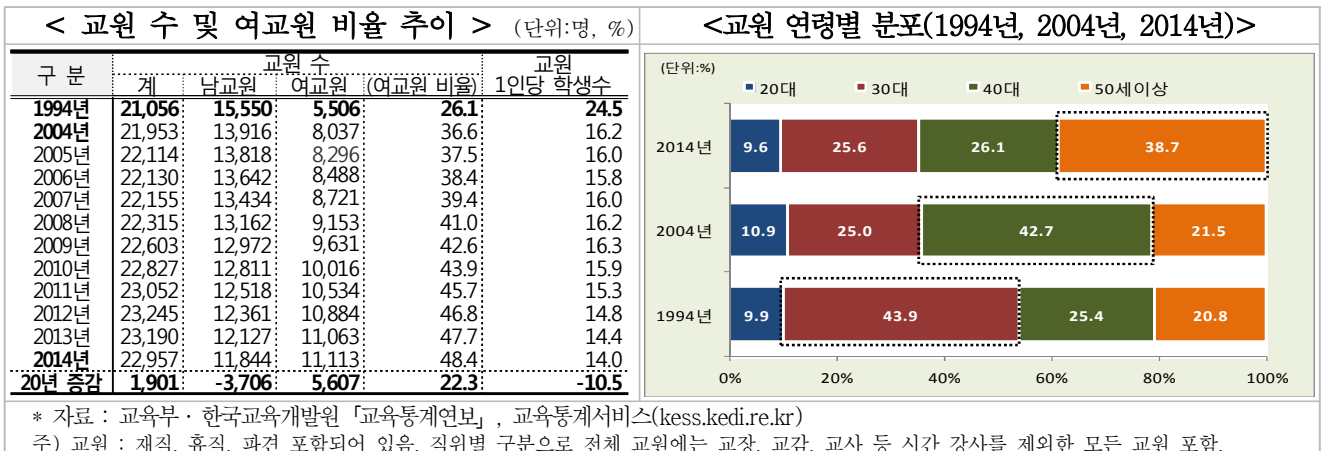
○ 또한, 2014년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대학 진학자가 56.6%, 무직자 26.0%, 취업자 9.1%, 군입대 등 기타 8.3% 순으로 분포됨.



- 2014년 고등학교 수는 318개교로 1994년 266개에서 52개 증가하였으며, 학교 내 학급 수는 1994년 1만484개 학급에서 2004년 1만528개 학급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9년 1만577개에서 2014년 1만355개 학급으로 감소함.
- 학교당 평균 학급 수는 1994년 39.4개 학급에서 2014년 32.6개 학급으로 감소함.
- 또한 학생 수 감소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994년 49.3명 과밀학급에서 2014년 30.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고등학교 교원 수는 2014년 2만2,957명으로 1994년 2만1,056명에서 20년 새 1,901명 (9.0%) 증가했으나, 교원 수는 1965년 3,705명에서 급증하다 '90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2012년 2만3,245명에서 2년 연속 감소함.
- 지난 20년 새 남성교원은 3,706명 감소(1만5,550명→1만1,844명), 여성교원은 5,607명 (5,506명→1만1,113명) 증가하였으며, 이처럼 여성 교원의 증가로 전체 중 여성 교원 비중은 1994년 26.1%에서 2014년 48.4%로 높아짐.
- 교원 수 증가 및 학생 수 감소로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4년 24.5명에서 2014년 14.0명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교원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교원 주 연령층 구조 1994년에는 30대(43.9%), 2004년에는 40대(42.7%), 2014년에는 50세이상(38.7%)으로 높아짐.





### 3.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4년 서울 중·고생 스트레스를 느낀다 80.6%, 느끼지 않는다는 19.4% 그쳐

▶ 중·고생 스트레스 정도 : 조금느낌 41.8% > 많이느낌 38.8% > 느끼지 않음 19.4%

▶ 고교여학생 89.5% > 중학여학생 82.8% > 고교남학생 77.7% > 중학남학생 72.4%가 느껴

중·고생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를 가장 선호, 선생님은 100명중 1명꼴인 1.2%에 그쳐

▶ 중·고생 고민상담 : 친구 37.8% > 어머니 25.4% > 대상없다 22.8% > 형제자매 5.3% > 아버지 4.7% 순

▶ 상담대상 없다 응답비율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중학 남학생이 34.8%로 가장 높아

□ 2014년 서울 중고생들 중 80.6%(많이 38.8%, 조금 41.8%)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음.

○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여학생이 86.4%로 남학생 75.2%보다 높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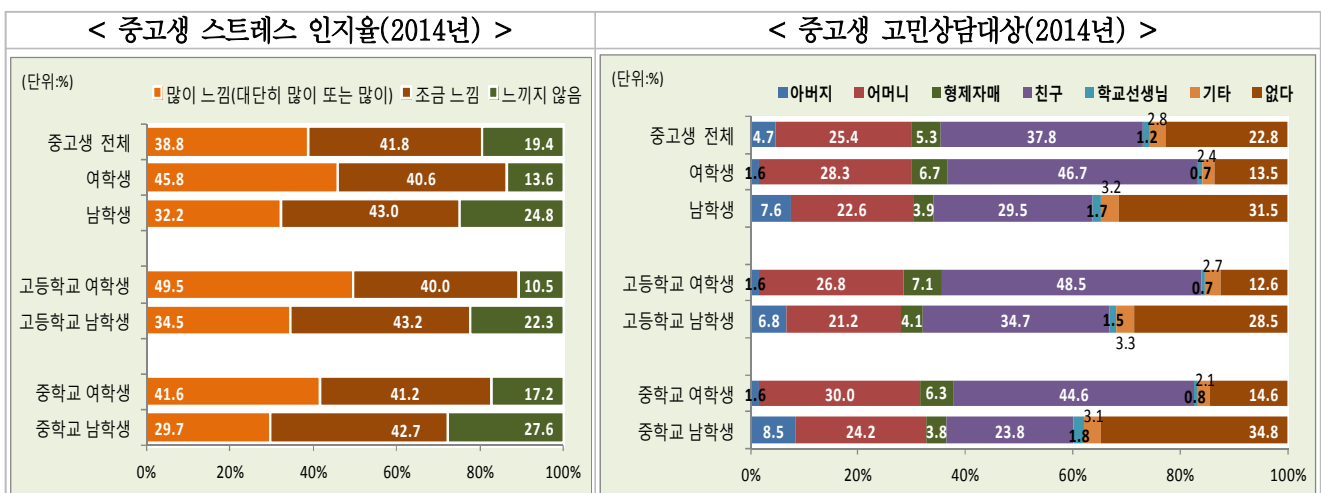
○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이 89.5%(많이 49.5%, 조금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통계로 보면, 중고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는 성적(시험, 입시 등) 56.6% > 부모님과 갈등 15.0% > 외모 10.1% > 교우관계 7.3% > 가정형편 4.6% > 선생님과 갈등 2.0%, 기타 4.4%임.

□ 또한 2014년 서울 중고생들은 고민이 있을 때,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를 가장 선호하고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한다는 학생은 100명 중 1명 정도(1.2%)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학생은 친구 46.7% > 어머니 28.3% > 대상없다 13.5% > 형제자매 6.7% > 아버지 1.6% > 선생님 0.7% 순  
남학생은 대상없다 31.5% > 친구 29.5% > 어머니 22.6% > 아버지 7.6% > 형제자매 3.9% > 선생님 1.7% 순

○ 중고생 고민상담 대상으로 친구가 37.8%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 25.4%, 상담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22.8%나 됐으며, 특히 상담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남학생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가공  
 - 스트레스 :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고민상담 대상 : 평상시 고민이나 힘든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합니까?

[참 고] 초·중·고 학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1965년	160	564,779	7,133	113	127,844	3,258	114	123,167	3,705
1966년	177	590,958	7,798	116	151,574	3,493	116	124,908	3,861
1967년	185	626,808	8,374	120	179,174	4,083	119	123,887	3,930
1968년	201	679,541	8,871	135	199,814	4,771	124	135,327	4,340
1969년	210	729,230	9,609	146	232,285	5,750	125	151,099	4,849
1970년	206	770,167	10,552	156	265,437	6,502	127	169,432	5,460
1971년	208	809,645	11,050	163	297,129	7,287	125	179,926	5,851
1972년	222	832,332	11,514	168	320,741	7,774	127	198,274	6,318
1973년	232	844,414	11,959	176	340,594	8,136	141	223,258	7,143
1974년	241	870,494	12,123	179	366,463	8,336	143	254,066	7,998
1975년	252	908,474	12,373	180	385,450	8,751	148	282,126	8,790
1976년	259	932,953	13,030	181	400,144	9,002	149	301,025	9,287
1977년	263	978,968	14,024	183	409,577	9,164	152	316,909	9,768
1978년	271	1,056,347	15,372	190	423,067	9,357	158	333,496	10,228
1979년	278	1,126,383	16,676	196	440,587	9,783	163	351,480	10,716
1980년	290	1,168,724	17,903	201	469,410	10,435	164	370,653	11,179
1981년	301	1,181,324	19,242	219	511,136	11,362	166	384,725	11,666
1982년	318	1,183,735	20,477	228	542,170	12,208	169	397,555	12,138
1983년	351	1,166,202	21,476	243	578,910	12,989	180	420,008	12,786
1984년	384	1,125,301	21,688	267	616,266	13,955	196	449,541	13,683
1985년	405	1,090,330	21,629	285	645,367	15,080	212	478,433	14,772
1986년	423	1,086,283	21,765	298	647,803	15,933	213	507,067	15,646
1987년	431	1,088,466	22,936	304	621,385	16,752	221	534,271	16,728
1988년	441	1,113,868	23,978	309	592,717	17,447	228	562,461	17,764
1989년	453	1,146,912	24,626	318	572,740	17,952	234	580,928	18,905
1990년	463	1,141,839	25,382	327	558,327	19,223	239	570,516	19,831
1991년	474	1,107,606	25,784	336	550,197	19,713	242	552,102	20,383
1992년	481	1,049,985	26,118	337	572,451	20,198	253	533,325	20,642
1993년	492	975,800	26,116	343	582,994	20,426	258	520,643	20,795
1994년	503	900,239	26,113	347	594,487	20,943	266	516,768	21,056
1995년	512	831,282	25,710	352	566,645	20,845	273	533,421	21,248
1996년	519	778,709	25,287	355	526,294	21,010	274	543,575	21,361
1997년	523	756,542	25,306	352	469,834	21,002	274	551,894	21,392
1998년	527	748,978	25,454	353	424,208	20,497	278	532,570	21,262
1999년	529	753,606	24,299	353	390,220	19,672	278	503,096	20,604
2000년	532	759,443	25,265	353	375,605	19,357	279	453,068	19,857
2001년	536	762,967	25,547	354	364,688	19,397	278	410,341	19,480
2002년	542	759,229	25,939	357	361,244	19,468	282	378,168	21,098
2003년	550	759,010	26,417	358	359,457	19,395	284	366,556	21,665
2004년	554	736,710	26,586	362	370,551	19,413	289	356,157	21,953
2005년	563	711,136	26,758	363	379,188	19,406	292	353,023	22,114
2006년	568	689,169	27,219	367	384,977	19,288	295	349,154	22,130
2007년	572	665,227	27,646	368	375,937	19,220	297	355,193	22,155
2008년	578	633,486	28,391	369	365,579	19,038	302	361,942	22,315
2009년	586	598,514	29,004	374	355,838	18,946	308	368,075	22,603
2010년	587	566,149	29,335	376	345,413	18,618	311	362,466	22,827
2011년	591	535,948	29,639	377	330,219	18,652	314	353,632	23,052
2012년	594	502,000	29,762	379	315,241	18,442	317	344,391	23,245
2013년	597	469,392	29,751	382	304,251	18,424	318	334,123	23,190
2014년	599	457,517	29,613	383	286,826	18,350	318	320,398	22,957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주) 학교 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되며, 폐교 및 분교는 제외됨

- 기타 학교 제외 :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제외됨.

-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